

오순절 후 아홉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9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7월 3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통일 47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5 번 (마태복음 6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1:16-19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소명의 노래”	찬양대
설 교 Sermon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Remembering You in My Prayers)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기도하는 것 보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통일 48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으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여,

이제부터는 소유 보다 존재에 집중하며,

변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삶이 하나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44, 눅 1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개역개정 **엡1:16**)

“I have not stopped giving thanks for you, remembering you in my prayers.” (NIV **Ephesians 1: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30 (주일)	7/31 (월)	8/1 (화)	8/2 (수)	8/3 (목)	8/4 (금)	8/5 (토)
본문	삿13 행17 렘26 막12	삿14 행18 렘27 막13	삿15 행19 렘28 막14	삿16 행20 렘29 막15	삿17 행21 렘30,31 막16	삿18 행22 렘32 시1,2	삿19 행23 렘33 시3,4

수/요/ 찬/양/집/회 특/별/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2수 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5)-“언약”(벧전29)
특별 새벽기도회 (8/5토 오전6:30)	“속사람을 강건하게”(엡3:16-19)

지난 주일(7/23) 말씀 – 정재홍 목사

“내 삶의 중심” (히브리서 9:11-22)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삶의 무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내 삶의 무게의 중심을 잘 잡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풍요하고 부족한 것 없이 삶의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삶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생활이 무질서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2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① 땀 흘려주신 은혜와 ② 피 흘려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남은 땀을 다 흘려주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피 흘려 죽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피 흘리는 일을 짐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이룩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변두리에서 맴돌면 안되고 은혜의 핵심이요 중심으로 들어와야 살길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설/교/ 메/모